

오피니언 리더



김순홍
· 사회학자
·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장

어떤 시인이 '잔인한 달'이라고 불렀던 4월이 지나고 5월도 한참이다. 71주년이 되는 제주 4.3학살, 엇그제 같은데 벌써 다섯 돌을 맞은 세월호, 그리고 5.18. 10월이 오면 제주 4.3에 물려나오는 여순학살도 71살을 먹는다.

모두 국가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폭력이다. 어떤 것은 낫내놓고, 어떤 것은 아닌 척 위장하여 수많은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

우리 역사를 통틀어 이같이 잔학하고 무도한 일은 없었다. 과거에도 수많은 사회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였지만, 무차별적으로 죽이지는 않았다.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일제가 남겨놓고 간 흔적이 국가폭력이라는 형태로 아직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진학성과 오야봉/꼬봉 식 맹종의 문화

제주, 여수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지어 베트남에서까지 국가라는 이름으로 군인과 경찰들이 수많은 민간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했다.

5월 광주에는 기관총이나 헬기사를 겨냥한 것도 모자라 폭격도 준비했다고 한다.

300명 가까운 아이들을 바다에 수장한 것은 총칼을 사용하지 않아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들이 있었다.

1948년 여수 14연대에는 제주를 진압하라는 출동명령에 '동포를 학살할 수 없다'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2,000명의 장정들이 있었으나 모두 반란군으로 몰려 아직도 제 자리를 못찾고 있다.

부당한 명령은 거부해야 한다. 부

들께, 무조건 복종의 오야봉/꼬봉 문화가 이어졌다.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고 거부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음에도, 일제의 문화에 길들여진 군정들은 물론 시민들도 '명령이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고 받아들였다. 잘못된 것이다.

제주 4.3에는 예비검속을 해서 모두 죽이라는 명령에도 '부당하므로 불이행한다'고 거부했던 문형순 성산경찰서장이 있었고, 5.18에도 시

민들에게 발표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인병하 치안감을 비롯한 수많은 의로운 경찰들이 있었다.

1948년 여수 14연대에는 제주를 진압하라는 출동명령에 '동포를 학살할 수 없다'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2,000명의 장정들이 있었으나 모두 반란군으로 몰려 아직도 제 자리를 못찾고 있다.

부당한 명령은 거부해야 한다. 부

당한 명령이라도 거부하지 않으면 처벌해야 한다. 독일이 통일되기전 베를린장벽을 넘어 민간인들을 사살한 동독의 군인들은 통일후 처벌받았다.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따른 죄'로 일제의 오야봉/꼬봉문화는 정당당당을 떠나 무조건 따르는 문화다.

오야봉이 지키던 꼬봉은 자기 목숨까지도 바쳐야 하는 문화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형태로 잘못 전해져 내려온 까닭에 일제를 겪지 않은 세대의 군정들도 명령에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으로 잘못 길들여지고, 잘못된 명령을 이행하는 것에 대한 죄의식도 느끼지 않게끔되었다.

말이나 습속, 문화 등 생활속에 남은 그 어떤 일제의 찌꺼기보다도 더 무서운 찌꺼기가 우리의 정서속에 남은 잔악한 폭력성과 무조건 따르는 맹종성이다. 이러한 일제의 찌꺼기가 우리 현대사를 망쳐왔다. 해방후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역사의 아픔이다. 하루빨리 일제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해야 한다.

친일잔재 청산!! 국가폭력 청산!!

국가폭력으로 남은 일제의 잔재

해방후 저질러진, 최근까지도 저질러지고 있는 국가폭력에서 일제의 흔적을 본다.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잔학성이다. 우리 역사에도 목을 베는 참수형, 목을 때는 교형, 사지를 찢는 능지처참형 등이 없지는 않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 극히 제한된 사람들에게 가해진 형벌이었다.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만들어놓은 구무덤, 코무덤, 일제가 중국 난

기고



정찬균
· 수정교회 담임
· 수정연수원 원장

마귀는 어둠의 신이니 모든 것을 어둠속에 가두어놓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입장에서 가르친다.

하나님은 생명의 신이니 생명의 입장에서 생명을 근거로 하여 가르친다. 상대적으로 마귀는 사망의 신이니 사망의 입장에서 가르친다. 하나님은 진리이시요 진실한 신이기 때문에 진실을 근거로 하여 가르친다. 상대적으로 마귀는 거짓말쟁이 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짓의 바탕 위에 속이기 위해서 속

아니오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하라고 한다. 그러므로 마귀가 가르치는 논리의 핵심은 너무 구별하지 말고 적당히 하며 따지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에 이러한 마귀의 이론이 침투하여 많은 혼란이 일고 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실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안경론'이라는 것이 있다. 안경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성경을 자기들이 가르친 대로 보고 가르친 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안경론의 핵심이론이다. 안경론에 주를 이루는 내용의 핵심은 베리아 사람의 체험이다. 어떤 사람이 농약을 하다가 죽었는데 그곳에 갔더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살리실 때의 말씀이 생각나서 송장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했더니 송장이 벌떡 일어났다고 한다. 문제는 일어난 다음에 생긴다. 일어난 사람의 정신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자꾸 헛소리를 해대므로 '내가 누구냐'고 물으니 '죽은 아무개'라고 자기의 이름을 말했는데 이름이 몇 년 전에 죽은 사람의 이름이었다고 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이 귀신이 자기기가 예수 안 믿고 죽어서 귀신이 되어 원통하다고 사설을 늘어놓았다고 하는 것이며 이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고 죽은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왔다는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일러져서 하나님을 만난다

직장인콜링 100일 목장일 - 1. 소명-일의 소명을 세상 속에서 구현하라

열정의 모세, 새로운 소명을 받다!

이집트의 차기 왕 후보였다가 나이 마흔에 살인죄를 저지르고 망명을 떠나 40년을 목자로 살았던 모세는 그야말로 '목' (牧翁)이 되었다. 하지만 40년간이나 파천하게 일을 치는 일을 한 모세였지만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건조한 광야지역에서는 자연 발효로 나무들이 불타는 경우가 있다. 그날 모세는 떨기나무 덩굴 가운데서 불이 난 것을 봤다. 그런데 타던 불이 평소보다 오래 타는 이유로 그곳을 주목했다.

모세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80세의 노구를 이끌고 그곳으로 갔다. 아마도 급한 마음에 달려 갔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자신의 일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이는 모세의 모습이 얼마나 멋진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모세가 자신의 일터에서 벌어진 문제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달려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세로 부르셨다. "내가 섰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5월). 그리고 그 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하겠다고 하셨다(10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지도자로 부름받은 것이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직업과 일터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보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 우리의 일도 모세의 양 치는 일처럼 따분하고 하찮은 일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일을 주님께 하듯이 감동하는 열정을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 이런 기대로 오늘도 열정을 다해 일하도록 하자.

>>> 일하는 사람의 기도

오늘 제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의 소명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일하게 하소서. 모세처럼 새로운 소명이 주어지더라도 짊어질 수 있도록 준비된 열정의 사람이 되게 인도해주소서.

본지는 위 글을 저자와의 협의를 거쳐 연재한다.(원용일 목사 지음/도사출판 브니엘)

미션21 후원교회

<p>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창대교회</p> <p>표어: 바를 따라 듣는 은혜를 얻게 하소서(히4:16)</p> <p>· 주일오전 1부 9:00 · 주일오전 2부 11:00 · 주일오후 3부 1:00 · 수요일예배 7:30 · 금요일예배 5:00</p> <p>담임 한상영 목사</p> <p>62306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산로 117번길 6(월곡동) 대표전화: 054-1217 FAX: 054-52-5833</p>	<p>한국기독교장로회 풍암계림교회</p> <p>표어: 세계비전을 이루는 교회 (마 28:19-20)</p> <p>· 주일오전 11:00 · 주일오후 2:00 · 수요일예배 7:00 · 새벽기도회 5:00</p> <p>담임 윤세관 목사</p> <p>62049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로 38번길 4-17 (홍암동) 대표전화: 856-0675</p>	<p>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벨엘교회</p> <p>표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생명의 공동체</p> <p>· 주일오전 1부 7:30 · 주일오전 2부 9:30 · 주일오전 3부 11:30 · 주일오후 4부 1:00 · 수요일예배 7:00 · 금요일예배 5:00</p> <p>담임 이종빈 목사</p> <p>61610 광주광역시 남구 문봉로 170번길 8(월산동) 대표전화: 367-1004 FAX: 361-1004</p>	<p>한국기독교장로회 광산교회</p> <p>· 주일새벽 5:00 · 주일오전 1부 9:00 · 주일오전 2부 11:30 · 수요일예배 오전 10:00 · 금요일예배 7:30 · 주일오후 1부 10:30 · 주일오후 2부 12:30</p> <p>담임 윤홍성 목사</p> <p>62305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산로 107번길 54(월곡동) 06394-8004 수원산로2번길: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암동1147</p>	<p>대한예수교장로회 신원벨엘교회</p> <p>표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생명의 공동체</p> <p>· 주일오전 11:00 · 주일오후 1:30 · 목요일예배 7:00 · 수요일예배 (신원동 30동 30동 30동) · 새벽기도회 오전 7:00 · 교회학교예배 오전 9:30 · 청년회예배 오후 1:30</p> <p>담임 김만수 목사</p> <p>62002 광주광역시 서구 문정로 113번길 7-1 (영흥동) 대표전화: 0621226-1009</p>	<p>대한예수교장로회 월광교회</p> <p>표어: 영적부흥으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공동체(마 28)</p> <p>· 주일오전 1부 7:30 · 주일오전 2부 9:30 · 주일오후 3부 11:30 · 주일오후 4부 1:30 (월사) · 수요일예배 7:30 · 새벽기도회 5:00 · 금요일예배 5:00</p> <p>담임 김요한 목사</p> <p>62025 광주광역시 서구 월광로 31번길 7(월곡동) 4171 대표전화: 0621375-0400 FAX: 0621375-8187</p>
<p>대한예수교장로회 광야교회</p> <p>표어: 내 교회를 세우라(마 16:18)</p> <p>· 주일오전 11:00(분당) · 주일오후 7:30(분당) · 수요일예배 7:30(분당) · 금요일예배 9:00(분당) · 새벽기도회 5:00(분당)</p> <p>담임 최옥란 목사</p> <p>62040 광주 서구 월동로 43번길 28번길 45-1(화정동) 대표전화: 0621369-8861 FAX: 0621352-0191</p>	<p>대한예수교장로회 첨단창조교회</p> <p>표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교회 (요 17:3)</p> <p>· 주일오전 1부 7:30 · 주일오전 2부 11:00 · 주일오후 5:00 · 수요일예배 7:00 · 금요일예배 8:00 · 새벽기도회 5:00 · 목요일예배 7:30</p> <p>담임 김연철 목사</p> <p>62256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로 181번길 88-16 대표전화: 0621971-8004</p>	<p>대한예수교장로회 빛과소금교회</p> <p>표어: Witness, 증인</p> <p>· 주일오전 1부 9:00 · 주일오전 2부 11:00 · 주일오후 3부 1:30 · 금요일예배 7:30 · 새벽기도회 5:20</p> <p>담임 정종근 목사</p> <p>61073 광주광역시 북구 임방울대로 1008-3 대표전화: 0621961-1191, 1291 FAX: 0621965-4821</p>	<p>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유일교회</p> <p>표어: 노대에서 평결까지 (2바 18:20, 행 16)</p> <p>· 주일오전 1부 9:00 · 주일오전 2부 11:00 · 주일오후 2부 2:00 · 수요일예배 7:00 · 새벽기도회 5:00</p> <p>담임 남태복 목사</p> <p>61747 광주광역시 남구 호수로 129번길 7 대표전화: 0621853-8161</p>	<p>대한예수교장로회 하남교회</p> <p>표어: 두 배의 복을 받게 되는 해 (눅 5:7)</p> <p>· 주일오전 1부 7:30 · 주일오전 2부 9:30 · 주일오후 3부 11:30 · 주일오후 4부 12:50 · 주일오후 2부 2:30 · 수요일예배 7:00</p> <p>담임 임준태 목사</p> <p>62333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정동로 76-12 대표전화: 0621961-9999 FAX: 0621962-5304</p>	<p>한국기독교장로회 광주계림교회</p> <p>표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우고 일하며 전하는 교회 (골 2:0, 마 9, 행 8)</p> <p>· 주일오전 1부 7:00 · 주일오전 2부 9:00 · 주일오후 2:00 · 수요일예배 7:00 · 금요일예배 5:00 · 새벽기도회 5:00</p> <p>담임 최요한 목사</p> <p>61414 광주광역시 서구 계림로 34-4 대표전화: 0621224-8861 · 227-8863</p>
<p>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새순교회</p> <p>표어: 기쁘게 집중하라 이 터는 곧 여수 그리스도라(고 3:1)</p> <p>· 주일오전 1부 7:55 · 주일오전 2부 9:20 · 주일오후 3부 8:00 · 주일오후 4부 8:00 · 수요일예배 7:30 · 새벽예배(월~토) 5:00 · 금요일예배 8:30</p> <p>담임 유성근 목사</p> <p>61029 광주광역시 북구 모곡로 34(월곡동 46-25) 대표전화: 0621572-9595 / FAX: 0621572-9596</p>	<p>대한예수교장로회 문흥제일교회</p> <p>표어: 건강하고, 영적하고, 자립하는 교회</p> <p>· 새벽기도회 5:00 · 주일오전 1부 8:00 · 주일오전 2부 11:00 · 주일오후 7:30 · 수요일예배 7:30</p> <p>담임 민연환 목사</p> <p>61127 광주광역시 북구 부남로 15번길 46(영동동) 대표전화: 0621266-8025 · 8025 · 0621266-8026</p>	<p>기독교대한성결교회 광주한빛교회</p> <p>표어: 성령님과 동행하는 해</p> <p>· 주일오전 1부 9:00 · 주일오전 2부 11:00 · 주일오후 2부 2:00 · 수요일예배 7:30 · 새벽기도회 5:00</p> <p>담임 문희선 목사</p> <p>61746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일로 41번길 3(노대동) 대표전화: 0621676-8831</p>	<p>대한예수교장로회 푸른솔교회</p> <p>표어: 영성이 넘치는 교회 (요 20:22)</p> <p>· 주일오전 1부 8:00 · 주일오전 2부 11:00 · 주일오후 1:30 · 수요일예배 7:30 · 새벽기도회 5:00</p> <p>담임 허창열 목사</p> <p>62308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암로 11번길 47 대표전화: 0621953-4620 · 070-4150-4620</p>	<p>대한예수교장로회 새희망교회</p> <p>표어: 삶에 새희망을 주는 교회</p> <p>· 주일오전 1부 7:30 · 주일오전 2부 9:00 · 주일오후 3부 11:00 · 주일오후 4부 1:50 · 수요일예배 7:30 · 새벽기도회 5:30</p> <p>담임 허태호 목사</p> <p>62253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로 79-5번지 대표전화: 0621971-9190 FAX: 0621972-9190</p>	<p>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남문교회</p> <p>표어: 새 생명을 전하는 교회 (행 18)</p> <p>· 주일오전 1부 7:30 · 주일오전 2부 11:30 · 주일오후 2:00 · 수요일예배 7:30 · 금요일예배 8:00 · 새벽기도회 5:00</p> <p>담임 장진우 목사</p> <p>61683 광주광역시 남구 범선동로 47번길 15(범선동) 대표전화: 0621676-1004 FAX: 0621676-4603</p>